“전통문화 외면한 국가정책 전환”

조계종 중앙종회, 213회 정기회서 결의문 채택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고속도로 표지판 문화재명 철거 논란, 자연공원법 개정안 입법예고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추진 등 불교를 비롯한 전통문화에 대한 국가정책이 조계종단과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이뤄지는 데 대해 조계종 중앙종회가 정부의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범해)는 11월 1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서 속개한 제213회 정기회서 ‘전통문화 외면 국가정책 전환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고 이 같이 밝혔다.

중앙종회는 결의문을 통해 “민족의 역사와 생사고락을 함께 해온 한국불교의 전통문화가 이 땅에서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고 강조한 뒤 △국토교통부의 고속도로 표지판 국가지정문화재 안내 철거 시도 △소통 없는 환경부의 자연공원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의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추진에 대해 불합리성을 지적했다.

중앙종회는 “정부주도의 일방적 정책이 아니라 공원 존속에 지대한 기여를 하는 이해당사자들과 함께 소통하며 공원정책의 변화와 혁신을 민관이 함께 주

자연공원법 전부개정안 등
소통 없는 정부 태도 지적
인사안 · 특위 구성 비롯해
중앙종무기관 예산안 승인

도해야 한다”며 “나아가 전통사찰 등 사찰소유토지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가 아니라 전통사찰을 유지하기 위해 이용되는 토지다. 불편부당하게 과세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중앙종회는 이어 “중앙종회는 전통문화를 보존, 계승하는 당사자로서 민족 전통문화가 온전히 후대에 계승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앙종회는 이번 회기서 각종 인사안과 특별위원회 구성을 마쳤다. 먼저 호법부장 서리로 임명된 성효 스님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가결했다. 또한 직능대표선출위원으로는 종열 · 도법 · 법보 · 영조 · 심경 · 성월 스님이, 공석인 초심호계위원에는 성화 · 태허 스님이 선출됐다. 신임 법규위원에는 정인 스님, 소청심사위원에는 보경 · 탄문 스님, 종립학교관리위원에는 도현 스님이 선출됐으며, 학교법인 동국대 교육이사 후보자로 복수 추천된 성우 스님과 자현 스님에 대한 동의를 통과시켰다.

대종사 법계 특별전형 대상자인 현 원로의원 우송 · 현호 · 일면 · 원행 스님과 비구니 명사 법계 특별전형 대상자인 소림 · 행돈 · 묘관 · 자민 · 법희 · 수현 · 혜운 · 자행 · 불필 · 자광 · 재운 스님에 대한 동의도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해당 특별전형은 추후 원로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0기 고시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재연 · 지안 · 대전 · 승원 · 무애 · 광전 · 혜원 · 지형 · 일진 스님에 대한 동의와 불기2563(2019)년도 중앙종무기관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 또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종헌종법 상 입법 미비를 바로 잡을 종헌개정 및 종법제개정 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함결 스님, 해종행위 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제민 스님이 임명됐으며, 위원 임명은 의장단에 일임키로 했다.

이외에 법계법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치지 않은 관계로 이월했으며, 종단 표준의례의식 동의의 건은 중앙종회 내 의례심사특위를 구성해 심사를 거쳐 3월 임시회서 다루기로 했다. 의례심사특위 위원장은 혜일 스님이 맡았다. 아울러 종무보고는 문건으로 대체하고, 종책질의는 이월해 중앙종무기관 주무부서의 답변을 보완할 것을 주문했다. 중앙종회는 이 같은 안건을 모두 처리한 뒤 15일간의 정기회 일정을 앞당겨 폐회했다.

원행 스님 “법난기념관 부지 이전 검토”

박원순 서울시장 예방서 계획 변경 의사 밝혀

서울 조계사 일대 조계종 총본산성역화사업과 맞물려 진행되던 10.27법난기념관 건립이 타 부지로 변경될 전망이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11월 1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서 박원순 서울시장 예방을 받고, 10.27법난기념관 건립사업 계획 변경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서 원행 스님은 “조계사 일대에 법난기념관을 건립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매입해야 하는 건물의 건물주들이 제시한 금액이 시세 대비 몇 배 높고, 근현대 문화재로 지정된 건물은 허물 수 없어 계획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부지 변경을 위해 조계사가 아닌 서울시내 등 20~30곳의 부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박 시장은 공감을 표하면서 “성역화 사업은 이견이 조금 있었지만 현재 설계도면까지 나왔다. 10.27법난기념관 사업도 조계종에서 잘 추진하시리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박 시장은 또한 봉은사 중창불사 계획과 관련해 “지상 · 지하를 나눠 불사를 계획하는 것으로 알고


원행 스님과 박 시장이 환담을 나누는 모습.

있다. 임대해놓은 인근 예식장이 (조계종에)돌아오면 잘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배석한 포교원장 지홍 스님은 “진행과정은 잘 모르겠지만 봉은사 인근 GBC나 영동대로 개발 등과 맞물려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자 박 시장은 “영동대로 개발에는 지하철을 비롯해 버스 등 광역환승센터 등이 들어선다. 서울시와 국토부가 각각 5천억의 예산을 투입한 사업”이라며 “현재 개발 이후 지하에서 봉은사로 길을 연결하는 것까지는 협의됐다”고 설명했다.

예방에는 서울시 측에서 정진우 문화시설추진단장과 서영관 문화정책과장이, 조계종 측에서 포교원장 지홍 스님과 조계사 주지 지현 스님, 기획실장 오심 스님 등이 배석했다.

윤호섭 기자

천태종 내년 일반예산 282억 원

11월 15일 제107차 정기종의회 결의

천태종 내년도 중앙종무기관을 비롯해 산하단체, (재)대한불교천태종 일반예산이 약 282억 원으로 확정됐다.

천태종 종의회(의장 도원)는 11월 15일 총본산 단양 구인사 삼보당에서 107차 정기종의회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해 원안대로 이 같이 의결했다. 중앙종무기관과 산하기관 2019년도 일반예산은 206억670여만원, (재)대한불교천태종 일반예산은 75억7300여만원이다.

이와 함께 종의회는 총무원이 제출한 ‘승니법 일부 개정안 및 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는 정부가 종교인과세를 시행하면서 종단 스님들의 원활한 종무 집행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종의회는 11월 13일 개원 후 총무 · 법제 · 재무 등 3개 분과위원회별로 담당기관의 예산안을 심의했다.

총무분과위원회는 총무부 · 교무부 · 교육부, 기획실 · 전산국, (주)금강신문을, 법제분과위원회는 감사원 · 규정부 · 사회부 · 천태종복지재단 · (사)나누며하나되기를, 재무분과위원회는 천태종 세입세출 예산안 · 천태종 특별 예산안 · 재단법인 천태종 세입세출예산안 · 재무부 · 학교법인 금강대학교 예산안을 심의했다.

안건 심의가 끝난 뒤 천태종 종정 도용스님은 교시를 통해 “부처님 법을 잘 믿고 따라야 세속 법도 잘 지킬 수 있다. 늘 건강한 모습으로 종단 발전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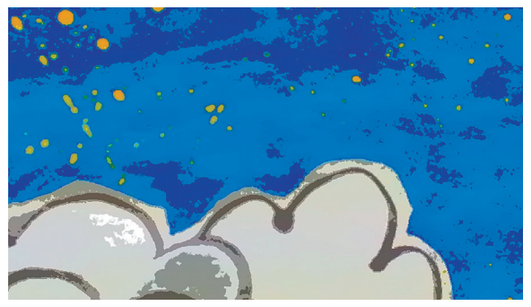


성운 스님의
보리수 아래서

비움은 여백이다

우리의 내면에는 광활한 여백이 있습니다. 그 무엇에도 연연(戀戀)하지 않고 자아를 비움으로써 볼 수 있는 텅 빈 자리입니다. 그 여백은 자유롭고 걸림 없는 허공 같은 마음입니다. 불교는 비움의 기쁨을 맛보게 하는 종교입니다.

*일본 메이지시대에 어느 대학교수가 난닌(南隱)선사를 찾아가 선(禪)에 대해 물었습니다. 스님은 교수에게 차를 대접하려고 찻잔에 차를 따랐습니다. 찻잔에 차가 넘쳐흘러도 스님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라보


비움은 여백 그림 · 조향숙

여백은 무량광명불 자리
염불하듯 절하듯 겸손
‘나’ 비우면 모든 이웃 행복

던 교수가 말했습니다.

“스님, 찻잔이 넘칩니다.”

스님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바로 이 잔처럼 그대는 자신의 견해와 지식으로 꽉 차 있어서 새로운 것이 들어갈 여지가 없네. 먼저 그대의 잔을 비우시게. 그래야 진리를 체험할 수 있소.”

널리 알려진 이 일화는 미국이나 유럽에서 300만 독자들이 곁에 두고 있다는 〈나를 찾아가는 101가지 선 이야기〉에 실려 있습니다.

*자신의 견해와 지식에 집착하면 진리를 체득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고(苦)가 생깁니다. 넘치는 찻잔을 비우듯 마음을 비우고 열어야 합니다. 고는 집착에서 나옵니다. 일체가 인연따라 생멸하는데 집착의 대상에 실체가 있다고 붙잡고 매달리니 좋고 나쁨의 분별이 나오고 번뇌가 일어납니다.

선과 악, 극락과 지옥, 좋고 나쁜 것을 분별하고 욕구하면 업력이 생겨 끄달리므로 삶이 괴롭습니다. 이고득락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업력을 보는 기회가 생겨 분별과 욕구를 내려놓으면 이 세상에 고는 없습니다. 일심 법계에 분별 망상을 쉬면 여래와 함께 합니다. 처처가 행복입니다.

집착에서 벗어나는 것은 무거운 짐을 들고 있다가 내려놓을 때 홀가분한 것과 같습니다. ‘나’라는 것에 국집하는 아만을 놓으면 무집착의 안락을 맛볼 수 있습니다. 칭찬에도 비난에도 연연하지 마세요. 연연하지 않으면 분별심이 사라집니다. 무상을 통찰하면 무착심이 나오고 무착심에서 이웃에 대한 자비가 나옵니다.

*놓고 비우기 위해 하염없이 몸으로 절 공양을 하고, 입으로 염불을 하고 마음으로 원력을 다지세요. 그렇게 닦으면 공덕이 생겨 만나는 사람들에게 염불하듯 칭찬을 하고, 절하듯 겸손해 집니다. 내가 비우면 만나는 인연마다 행복합니다.

수행한 만큼 원력이 건강해집니다. 몸 정진, 입 정진, 마음 정진의 원력이 꽃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 열매를 주변에 있는 인연들에게 쓰세요. 물난리 난 곳에, 이웃돕기 ARS전화에 동참하면 부자현상이 생깁니다.

내 속의 나쁜 한 중생 한 중생을 소멸하려면 분수에 맞게 보시하세요. 선근 공덕이 무럭무럭 자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허공 영가에게까지 공덕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이웃을 이익되게 하면 세세생생 업장을 소멸하고 복과 혜가 들어와 복혜쌍족하게 됩니다. 부처님과 같은 몸과 마음이 됩니다.

온전한 비움은 무량 광명이 상주하는 부처님의 자리, 내 안의 광활한 여백입니다.

〈삼천사 회주 · 동국대 석좌교수〉

세계에서 침 제일 의과대학, 중국 1위 대학 -
세계 100위 대학 남경대 재경
2019년도 남경 의대(중의학) 학생 모집


혜인스님
한국총장

조기유학생 모 집
어학단기반
● 초 6년 ~ 고3 재학
● 남경사범대학 부속실험학교
www.njsdfc.co.kr

한국 유학생 중국의사 개업 취업
의료행위 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인 중국 의대졸업생 중국정부 중국 의사자격 취득한
외국인 개업 의사활동 허용한다고 중국정부는 발표했다.

❶ 특차모집(남경중의학대학)

학 과	학 제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의학과	5년	100명	• 최종학력증명 1부 • 최종성적증명 1부 • 입학신청서 1부 • 여권용사진 10부
석사과정	3년	50명	
박사과정	3년	10명	
재경대학	4년	80명	• 법학,경제,경영,무역,식품,금융 등

❷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 주지스님 추천자

❸ 학교소개
▶ 세계침구 1위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 WTO 국제 전통의학 협력센터
▶ 부속병원3,제약공장,교육병원12,제약연구소 등 완비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 군입대 연기 가능
▶ 현재 생활관리 담당교사 상주하여 학사 관리
▶ 학자금 대출 가능
▶ 서울시내 대학 편입 가능
▶ 중국내 개업 의사 가능

❹ 전형방법 및 모집기간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모집기간 : 2018년 11월 25일까지 수시전형

❺ 지원서 교부 및 접수
▶ 교부 : 한국 사무처 –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불교조계종 교학과에서 직접 교부 (지방은 우편으로 배부 가능) www.njutcm.co.kr
▶ 접수 : 불교조계종 한국분교(빠른 접수 가능)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 26가길 50-1(돈암동 83-2)
▶ 제출서류 특별전형 : 최종학력증명 및 성적증명서 각 1통
▶ 기 타 어학연수 및 조기유학에 관한 문의는 불교조계종 국제교류처(☎02-511-1080)으로 문의 바람.

❻ 학비(등록비 및 보험료 포함)
▶ 학사 과정 : 매년 25,800위안
▶ 석사 과정 : 매년 33,800위안
▶ 박사 과정 : 매년 41,800위안

■ 남경중의약대학(南京中醫藥大學)
南京市仙林大道138號(210023)
138 Xianlin Rd., Nanjing 210023, P.R.China
E-mail : overseas@njucm.edu.cn
Website : www.njucm.edu.cn

■ 한국상담처 : 불교조계종 총무원교육부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 26가길 50-1 (돈암동 83-2)
▶ 교학처 : (02)511-2026, 2027 Fax (02)511-2028
▶ 총장실 : (02)511-1080
▶ http://www.njutcm.co.kr